

가정의 달

아버지 주일

믿음성장과 신앙성숙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y 8,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7:14-25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유덕하 집사, 오정은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살과 세상으로	* 찬 송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3:1-4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으십시오.
-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 믿음성장과 신앙성숙의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 정기 제직회 다음 주일 (5/14) 오전 11:00
- 오순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5월의 사역 - 어버이주일/Mother's Day(5/8)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8-14) 소금과 빛 된 주간(15-21)
선교주간(22-29) 선교주일(30)

♥ 5월 생일축하 ♥ 구 민(8) 구민우(16) 김진숙(17) 최내권(20)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3.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4.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5/8	5/15	5/22	5/29
	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	최선윤집사	구 민집사
주일헌금위원	5/8	5/15	5/22	5/29
	유덕하집사/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5월			
	구 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큰 아들의 어리석음** / 누가복음 15:25-32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은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 반면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다. 떠난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큰 아들은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가리키지만,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지만, 겉 모습과 달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지 않은가. 몸은 교회에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 때로 서운하고, 조금 억울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자.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가? / 출애굽기 7:14-25

하나님은 작정된 시간에

약속을 기억하시고,

훈련받고 준비된 일꾼을 부르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

거짓 영성과 세상의 술수는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가? / 출애굽기 7:14-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과 달리, 바로와 이집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단지 두려움 자체로 아무런 영적 유익을 얻지 못했다. 10가지 재앙으로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세상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바로와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려하지 않자, 나일 강의 물은 피로 변했다. 나일 강은 이집트의 생명줄로 그들의 신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강물이 피로 변했다. 죽음의 물로 변했음에도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 낸 술객이나 이집트의 신이 강력하다면 강물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나일 강의 물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도 모세의 몫이었다. 거짓 된 영력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 거짓 영성은 유익을 가져줄 수 없다.

바로와 모세,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목격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지는 못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계획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여전히 말씀하신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 할 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꾸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생명이 유지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변화할 때이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때는 하늘이 땅에 임하고 땅이 하늘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답고, 장성한 때는 장성한 때답게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것이 때에 맞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자연법칙만이 아니라 역사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야말로 역사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의 때'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은 완성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해주시는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행 2:1)라고 한 바로 그때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 놀랍게도 모두 한 마음 한 소망으로,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실 준비가 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나라의 새 백성, 즉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이루어진 역사로, 지금이 바로 오직 믿음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때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이제 낙심할 일은 우리에게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운명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생생한 복음을 생생한 주님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멈춰 선 것 같은 바로 이때, 다 실패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생생한 주님으로 그분과 동행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김용의, 『나에게 생생한 복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서 낙심될 때

아무리 기도하고, 섬겨도 상황이 나빠져서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하물며 저도 잘 안 바뀌고요.'

그런데, 방황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해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낙담하면 주님을 떠나 낙담하다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크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방황해도 주님 앞에서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드리며 설교를 찾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다렸지요. 주님은 주님께 계속 나아오는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제 마음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성령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낙심 말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지치고 연약한 사역자여
한계가 없으신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호와와 전능하시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 찰스스펄전



야기서 2: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만유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만유하여 가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